Double Concerto for violin and cello in A minor, Op. 102

- □□

정보

개요
곡명: Double Concerto for violin and cello in A minor, Op. 102
작곡가: Johannes Brahms (1833–1897)
장르: concerto
작곡 시기: 1887년 여름, 스위스 Thun. 자필 총보는 8월 11일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기록됨
초연: 1887년 10월 18일, Köln Gürzenichsaal, Joseph Joachim(바이올린)·Robert Hausmann(첼로), Johannes Brahms 지휘
성격: 두 독주자가 경쟁하기보다 서로의 선율을 이어받는 협주곡으로 , Brahms의 마지막 관현악 작품이자 실내악적인 균형을 지닌 후기 양식의 결산이다.

Brahms는 이 작품을 교향곡 제 4번 이후의 여름에 썼다. Robert Hausmann이 첼로 협주곡을 요청한 뒤 Joseph Joachim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이중 협주곡으로 구상이 바뀌었다는 설명이 있지만, 이는 기관 해설의 추론이며 작곡가가 남긴 명시적인 기획 문서는 아니다. 확실한 사실은 1887년 Thun에서 악보가 만들어졌고 , 9월 Baden-Baden에서 초연자들과 초기 리딩을 거친 뒤 10월 18일 Köln에서 Brahms 자신의 지휘로 공개 초연되었다는 점이다.

첫 악장의 첼로와 바이올린은 짧은 오케스트라 발단 뒤 차례로 등장한다. 낮은 음역의 첼로가 말을 건네면 바이올린이 응답하고, 두 악기는 카덴차풍의 대화를 거쳐 오케스트라와 주제를 나눈다. 느린 Andante에서는
두 독주자가 옥타브와 유니즌으로 넓은 선율을 함께 부르고, 마지막 Vivace non troppo에서는 춤곡적인 리듬 속에서 다시 각자의 목소리를 주고받는다 . 이 세 악장은 ‘두 사람을 위한 협주곡 ’이라는 형식을 대화와 공동 호흡으로 풀어낸다.

작곡 배경과 초연 전 리딩

Brahms는 1887년 여름 스위스 Thun에서 작품을 썼다. Brahms-Quellenverzeichnis는 빈 Gesellschaft der Musikfreunde에 보관된 자필 총보가 8월 11일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기록한다. 9월에는 Baden-Baden 의 Clara Schumann 집에서 Joachim과 Hausmann이 Brahms와 함께 악보를 읽고 연습했다. 일부 자료는 9 월 23일과 현지 Kurorchester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만 , 피아노 리딩인지 오케스트라 리허설인지와 정확한 날짜는 자료마다 다르다. 따라서 Baden-Baden 행사는 공식 초연에 앞선 사적 또는 준공개 시연으로 구분한다

.

Clara Schumann의 일기에는 이 만남을 두 사람의 관계가 풀리는 ‘화해의 작품 ’으로 받아들인 반응이 남아 있다고 전해진다. Brahms와 Joachim이 Joachim의 이혼 문제를 둘러싸고 멀어졌다는 전기는 이 기록을
설명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Clara의 당대 반응이나 후대 해설을 Brahms가 작품에 화해의 줄거리를
넣었다는 증거로 바꿀 수는 없다. Berliner Philharmoniker도 그런 개인적 의도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고 지적한다.

Köln 초연과 초기 전파
1887년 10월 18일 Köln Gürzenichsaal의 Konzertgesellschaft 정기 연주회에서 Joachim과 Hausmann이 독주하고 Brahms가 지휘했다. Brahms-Institut는 초연이 작곡가의 원고를 사용한 연주였다고 기록한다. 이후 1888년 1월 1일 Leipzig Gewandhaus, 2월 6일 Berlin Philharmonic Society, 2월의 London Symphony Concerts로 공연이 이어졌다. 2월 6일 베를린 공연은 Hans von Bülow가 지휘한 Berliner Philharmoniker의 첫 연주로 기관 프로그램에 남아 있다.

미국에서는 Franz Kneisel과 Alwin Schroeder가 1893년 11월 17일과 18일 Boston Symphony의 첫 연주를 맡았다. 당시 Boston 신문은 두 독주자의 조화와 개인적 과시보다 작품을 앞세운 앙상블을 언급했다. 이 평가는 특정 공연에 대한 동시대 수용 기록이며, 오늘날 모든 연주에 적용할 규범은 아니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은 1938년 Bronislaw Gimpel, Alexander Borisoff, Otto Klemperer의 기관 첫 연주도 기록한다.

출판과 악보 전승

1888년 Berlin의 N. Simrock에서 총보, 두 독주부, 피아노 편곡이 차례로 출판되었다 . Brahms-Portal은 독주부와 피아노 편곡의 초판을 1888년 5·6월 인쇄, plate 8936, 피아노 편곡 47쪽과 각 독주부 23쪽으로 식별한다. 총보는 6월 초 발행으로 보는 편집 주석이 있으며, 세부 발행월은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학술판은 Michael Struck이 편집한 Johannes Brahms Gesamtausgabe Serie I, Band 10(2000)의 오케스트라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편집자는 빈에 남은 Brahms의 자필 총보 A 103, William Kupfer의 Juilliard 필사 총보 C+, Simrock 초판 총보와 독주부, 오케스트라 파트를 서로 대조했다. Juilliard 사본에는 Brahms의 수정과 Joachim의 독주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기입이 남아 있고, 제 3악장에 연필로 추가된 여섯 마디도 보인다. Robert Hausmann이 초연에 사용한 필사 첼로 독주부는 2003년에 다시 발견되어 판본
연구에 보탬이 되었다.

자필 총보가 초연 준비 과정에서 계속 수정되었을 가능성, 피아노 편곡의 인쇄용 원고가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작품을 1888년 초판의 단순한 복사본으로 볼 수 없게 한다. 실제 음표의 마디별 차이는 비평판의
주석을 따라야 하며, 소장처 기록만으로 새로운 음악적 의도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

편성과 소요 시간

독주 바이올린과 첼로에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팀파니, 현악이 더해진다. 확인된 기관 편성표에는 트롬본이나 튜바가 포함되지 않는다. Brahms는 큰 관현악을 사용하면서도 독주
듀오가 합주에 묻히지 않도록 음역과 음색을 세밀하게 나눈다.

기관 자료는 IMSLP 평균 33분, Berliner Philharmoniker 34분, Los Angeles Philharmonic 약 35분을 제시한다. 따라서 전곡은 약 33–35분으로 안내할 수 있다. Warner 계열의 Oistrakh·Rostropovich·Szell 녹음은 33분 52초로 표시되지만 , 그 시간은 1969년 특정 발매의 트랙 합계이며 모든 연주의 표준이 아니다.

I. Allegro: 두 독주자의 첫 대화

A단조의 첫 악장은 짧은 오케스트라 발단 뒤 제 5마디에서 첼로 독주가 먼저 등장하고 , 바이올린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 두 독주자는 카덴차풍의 자유로운 선율을 주고받은 뒤 함께 움직이며 , 오케스트라는 두 주제의 단서를 더 넓은 합주로 펼친다 . 이 도입은 독주자가 오케스트라 위에 일방적으로 올라서는 협주곡과 다르다 . 각 악기가 자신의 음역으로 발언하면서도 , 상대의 문장을 받아 다음 진행을 만든다 .

첫 악장은 작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 낮은 첼로의 발언은 선율적 무게를 만들고 , 바이올린은 높은 음역의 긴장과 응답을 더한다 . 두 독주자가 병행과 모방 , 대위적으로 얽히는 구간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반주에 머물지 않고 주제의 방향을 바꾼다 . 기관 해설이 ‘sonata-concerto’라고 부르는 형식 설명은 이 악장의 큰 호를 가리키는 분석 용어이며 , 공식 악장 표제와 같은 종류의 정보는 아니다 .

II. Andante: 같은 선율을 나누어 부르기

D장조의 Andante는 첫 악장의 긴장을 넓은 호흡으로 바꾼다 . 바이올린과 첼로는 서로 다른 음역을 유지하면서도 옥타브와 유니즌으로 같은 선율을 함께 시작한다 . 목관과 호른의 따뜻한 색채가 독주를 감싸고 , 두 악기는 한 악기가 선율의 앞부분을 맡으면 다른 악기가 뒷부분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Jan Swafford는 이 악장을 단순한 ABA 형식으로 설명하고 , 중간 주제를 코랄과 비슷한 성격으로 듣는다 . Berliner Philharmoniker는 두 독주자가 같은 방향의 유니즌으로 노래한다고 설명한다 . 이러한 명칭과 비유는 각 기관의 분석에 귀속해야 하며 , 음악 외적인 화해 서사를 확정하는 표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 중요한 것은 두 독주자의 경쟁이 잠시 사라지고 , 서로 다른 악기가 하나의 긴 문장을 공동으로 완성한다는 사실이다 .

III. Vivace non troppo: 춤과 종결

마지막 악장은 A단조에서 출발해 A장조의 종결로 향한다 . 빠른 주제가 되돌아오고 , 독주자와 오케스트라가 짧은 동기와 춤곡적인 리듬을 교환한다 .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이를 확장된 sonata-rondo로 , Naxos 해설은 Hungarian rondo로 설명한다 . ‘헝가리풍 ’이라는 말은 리듬과 춤의 인상을 가리키는 해설어이지 , Brahms가 특정 민요를 직접 인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

피날레의 독주자들은 빠른 교대와 유니즌 , 모방을 오가며 끝까지 공동 주체로 남는다 . A단조의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 마지막에 A장조로 옮겨 가면서 결말의 밝음이 얻어진다 . 긴 코다와 관현악의 추진력은 두 악기가 처음의 대화를 더 넓은 음향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들을 수 있다 .

Joachim과 Hausmann, 그리고 해석의 경계

Joachim과 Hausmann은 이 작품의 초연자이자 독주부 전승에 관여한 연주자들이다 . Brahms가 Joachim에게 건넨 원고에 그를 위해 쓴 작품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기록 , Joachim의 독주 바이올린 수정 , Hausmann의 필사 첼로 독주부는 작품이 초연자들의 실제 작업과 함께 다듬어졌음을 보여 준다 . 그러나 이 자료가 특정 화성이나 선율을 두 사람의 개인사를 묘사한 음악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F-A-E, 즉 ‘자유롭지만 고독하다 ’라는 Joachim의 표어와 작품의 동기를 연결하는 해설도 있다. 이 연관성은 Berliner Philharmoniker와 Boston Symphony Orchestra 프로그램에 소개된 후대의 독법이다. 작품의 공식 악장 순서와 조성, 두 독주자의 교대는 악보와 기관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이고, F-A-E와 화해의 의미는
별도의 해석 자료로 남겨야 한다.

녹음으로 보는 연주 조건

1939년 10월 21일 Arturo Toscanini와 NBC Symphony Orchestra가 Mischa Mischakoff, Frank Miller와 함께 남긴 방송은 확인 가능한 초기 녹음이다. Pristine Classical에 재수록된 Fanfare의 평가는 1939년
연주가 1948년 방송보다 외곽 악장에서 숨 쉴 여유가 있고 독주자와 오케스트라의 루바토가 유연하다고 본다. 이 평가는 비평가의 청취 판단이며, 방송의 객관적 기록과 구분한다.

1969년 5월 12–13일 Cleveland Severance Hall에서 David Oistrakh, Mstislav Rostropovich, George Szell과 Cleveland Orchestra가 녹음한 발매는 세 악장의 트랙과 33분대의 총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Warner Classics는 2024년에 이 기록을 고해상도로 재발매했다 . 레이블이 붙인 ‘landmark’ 같은 평가는
홍보 문구로만 사용하고, 연주사의 사실과 음향의 서열을 섞지 않는다.

21세기 자료로는 Gil Shaham·Jian Wang·Claudio Abbado·Berliner Philharmoniker의 2002년 Deutsche Grammophon 발매와, Anne-Sophie Mutter·Pablo Ferrández·Manfred Honeck·Czech Philharmonic의 2022년 Prague 실황이 있다. 후자의 음반은 2022년 11월 4일 발매되었고 Clara Schumann의 Piano Trio를 함께 수록했다. 이 사례들은 두 독주자의 협업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특정 녹음을 작품의 유일한 표준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두 독주자를 위한 협주곡

Op. 102는 Brahms가 교향곡과 독주 협주곡, 실내악에서 다듬어 온 언어를 두 악기의 관계로 묶는다. 첫 악장의 낮은 첼로와 높은 바이올린, Andante의 옥타브와 유니즌, 피날레의 춤곡적 교대는 독주자들이 서로를 밀어내면서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보여 준다.

이 작품을 Joachim과의 화해라는 전기적 이야기만으로 설명하면, 초연 ·판본 ·형식이 지닌 독자적인 구조를 놓치기 쉽다. 반대로 개인적 배경을 모두 지우면 Clara의 일기와 초연자들의 수정이 남긴 수용사를 설명하기 어렵다. Op. 102는 두 자료를 나란히 두면서도, 최종 판단을 음악의 실제 진행에 맡긴다. Brahms의 마지막 관현악 작품은 협주곡의 외형 안에서 두 독주자와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문장을 함께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후기를 정리한다.

주요 자료

Brahms-Institut Digitales Archiv, Op. 102

Brahms-Quellenverzeichnis, 자필 총보

Juilliard Manuscript Collection, Op. 102

Henle 편집 주석

Johannes Brahms Gesamtausgabe

- Berliner Philharmoniker □□□□ □□
- Boston Symphony Orchestra □□□□ □□
- Los Angeles Philharmonic □□ □□
- Pristine Classical, Toscanini □□
- Warner Classics, Oistrakh·Rostropovich·Szell
- Deutsche Grammophon, Shaham·Wang·Abbado
- Sony Classical, Mutter·Ferrández·Honeck
- IMSLP: Double Concerto, Op. 102
- Wikipedia: Double Concerto